

사순제 5주일

기도서 P. 299 C해

제1독서(이 사)	43. 16-21)
제2독서(필 립)	3. 8-14)
복 음(요 한)	8. 1-11)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회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②2935)

□ 강론



신부님! 왜 하느님을 볼 수 없나요?

이 종 원 신부

가끔 어린이들에게서 우리는 생각하기 어려운 많은 것을 듣고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민학생 어린이 3명이 저한테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한 어린이가 “신부님 하느님은 어디 사시죠?”라는 질문을 받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대답을 한참 찾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어린이가 “하늘에 살지 어디에 살아”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왜 하늘에 사시는 하느님을 볼 수 없나요?” “글쎄” 정말 대답하기 곤란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던 증인테 옆 친구가 “하늘에 항상 구름이 끼어 있는데 어떻게 하느님을 볼 수 있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맞다 정말 맞다”

우리는 가까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는 하느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국민학교 2학년 어린이가 가르쳐 준대로 하늘 같은 마음에 항상 구름이 끼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관심을 쏟아주시고 은혜와 축복 주심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항상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할 것을 애타게 기다리심을 느끼지 못하며 가족, 친지, 이웃들이 이해와 사랑과 관심을 쏟아 준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생활합니다. 우리의 마음(양심)은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먼지가 끼면 짙수록 보이지 않지만, 닦으면 맑을수록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오늘 복음은 간음하다가 들린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물었습니다. “간음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예수님은 “당신중에 누구든지 죄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2,000년이 지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신있게 여자를 향하여 돌을 들어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바로 양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향하여 돌을 들어 던질 때가 많습시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믿음과 맑은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파선 당했습니다. (1 디모데오 1/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과 가족들과 친지 등 우리와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 보기 위하여 우리는 양심(마음) 깨끗이 닦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부활 판공 성사를 타당히 준비하여 열심히, 마음으로 봅시다. 구름 낀 마음 흐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느님도 가족과 이웃 친구들도 볼 수 없습니다. (장수 천주교회 주임신부)



안팎이 같아야...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이 있게 마련이다. 무슨 일거리가 생기면 나름대로 그에 대처한다.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미리 서둘러서 손님맞을 준비로 집을 깨끗이 가꾸는 것도 그 한 예이다. 지금 우리 고장 전라북도도 온통 전국제전 준비로 바쁜 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해외의 교포까지 모여드는 이 큰 잔치의 준비에 정성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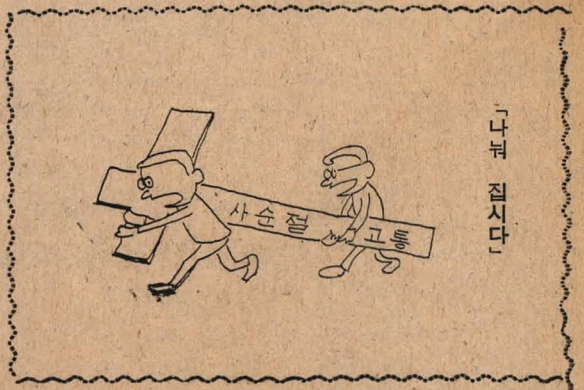
전국제전을 앞둔 준비가 알차고 멋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시내를 둘러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고층건물이 올라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신축 사업이 체전준비인양 여겨지기도 한다. 가끔가다 한층 소리로 들린다. 아직도 걸치레에 힘쓰는 옛잔치가 남아 있기도 하다. 길가에 위치한 조그마한 집들이 걸맞지도 않게, 보이는 쪽에만 예쁜 벽들을 붙이고 알미늄 샷슈를 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속이 비게 마련이다. 걸치레는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낳게 한다. 왜 말로는 능률과 실질을 중상한다면서도, 아직까지도 걸치레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가? 있는 그대로, 능력대로 살자. 손님을 대하는 예의는 있는 그대로를 아름답고 참되게 꾸며 보여주는 일일 것이다. 체전준비도 그렇다. 우리네의 소박하고 따뜻한 인정미를 보여주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속은 빈채 걸만 번치레 한 사람들은 이제 자숙 좀 하자. 교육의 이념도 없는 자들이 욕영사업을 한담시고 장사나 하러 들고, 정치적 발판이나 구축하러 드니 한심하기만 하다. 백성들도 빚 좋은 개살구는 용케 가려낼 줄 안다.

“색은 것이 가득찬 회칠한 무덤,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이 세대에 내리고야 말 것입니다.”(마태오 23, 1-36)

숲 정이 산책





농민상담소 안내문

어렵고 길었던 70년대를 보내고 80년대를 맞이하여 농민 가정의 평안함을 바랍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테사후 3, 10)는 성서 말씀과는 달리 일하지 않으면서도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부를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땀흘려 노력하는 우리 농민들은 그 노력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지 못하고 더욱 가난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통감한 가톨릭 농민회에서는 여러 해를 통하여 농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농민들과 함께 노풍 피해 보상운동을 전개하여 정부로부터 소액(500만원)의 보상이나마 받아, 농민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드린 바 있으며, 농지세제 및 각종 농민관계 조항의 민주화 운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 가톨릭 농민회에서는 80년대에도 농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고산 천주교회에 농민상담소를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농민 상담소는 우리 농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요한 3, 11)라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 농민의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곱씹어 달아 주며, 시정을 촉구하고, 농산물 적정가격 받기운동과 부당한 농지세제 및 수세, 농협의 강제출자 등을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농민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저희 상담소를 찾아 주시면,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 농지세(갑류 또는 을류)가 부당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2. 각종 농민 관계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3. 계약재배에 있어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4. 기타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경우

1980년 2월

한국 가톨릭 농민회 전북연합회 고산 협의회

알 립

인천 구월동 교회모지 이장
인천시 도시 계획으로 구월동 교회모지 이장을 위해 묘기 연구자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기 3월 24~29일
신고장소 동천주교, 문의 : 73-2556번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McGREGOR Weekend

맥그리거 위크엔드

성인·아동용 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 4 5 1 유율리안나

□ 단상 ⑩

지성의 방향

최규환(알베르토)

만일 어떤 의사가 일주일이면 치료될 수 있는 병을 몇 가지의 알기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환자에게 겁을 주어 한달동안 치료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변호사가 한 달이면 해결될 수 있는 민사문제를 몇가지의 알기 어려운 민법이나 민사소송 법규를 인용하면서 원고나 피고에게 겁을 주어 1년동안이나 질질 끌게 함으로써 돈을 뜯어내는 사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유형의 부조리는 최고의 지식을 접미한 지식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식이란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충분한 것은 아니다.

지식이나 지성을 함하면 우리 사회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식은 쉽게 전수가 가능하지만 지성이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그동안 우리는 지식의 전달 교육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성을 기르는 교육을 소홀히 해왔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올바른 인간을 만드는 작업이라면 특히 교육은 지식이나 지성을 함한 교육 쪽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 숨은 미담

서울 소신학교 화재에

어머니들이 성금 15만원

서울 성신고등학교에 불이 났었다. 성당은 완전히 타버렸다. 감실이 녹아 없어질 정도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어머니들 모임이 성금 15만원을 기탁했다. 이 어머니들은 그들의 귀한 아들들을 하느님의 사제로 봉헌하였다. 열명의 어머니들이 살림을 쪼개고 나누어 모은 성금은 이제 신학교 화재 복구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 다시 하느님 앞에 아름답게 꽃피게 되었다.

이 어머니들이 모임을 갖기까지는 그 아들 사제들의 효성이 힘이 되었다. 동창들인 사제들은 남들처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어머니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위로해 드렸다. 평소에도 서로가 잘 아는 처지였으나 이 모임을 계기로 어머니들은 친동기간처럼 가까워졌다.

10명의 어머니들은 아들들이 사제가 되기 위해 첫발을 디디었던 소신학교 화재 소식에 마음이 편할 수 없었다. 비록 한 어머니는 그 아들이 소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모른체 할 수가 없었다.

알려지기를 싫어한 어머니들의 뜻인줄 알면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기에 그냥 물어 볼 수 없어서 소개해 본다. (편집자)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제대장식 유명장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⑥ 0 9 2 1

범 락(떡배)·이 마리아



인성회(仁成會)와 천상 보고(天上寶庫)

김 환 철 신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75년도 춘계총회에서 “福音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人間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正義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기구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여 “진급 제안이나 자신 및 복지사업을 도울 수 있는 상설 기구가 바로 인성회(CARITAS)입니다. 이 인성회는 주교회의 산하 상설 전국기구로, 그 계획과 업무를 주교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마음과 마음들이 만나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져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회의 정신과 실천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영광으로의 탈출이며, 부활의 해방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져 하는 집념, 이것이 바로 사순절이 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눔의 운동을 주관하는 인성회를 통하여 버림받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나눔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운동을 통하여 참다운 해방의 길로 들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재물에 얽매인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부활의 은총으로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이거나 정신적 사랑이 다른 불쌍한 사람들에게 생존에 대한 절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될 것임을 우리는 잘 체험해 왔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교구내 모든 교우 여러분!

본 교구에서는 1977년도에 김재덕 주교님을 총재로 모시고 인성회 정관을 설정하여 초대 지도 신부님으로 김용태(현 관리국장) 신부님을 선임, 7인의 상임위원과 각 본당 신부님 사도회장님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오늘에 임하였습니다. 전주교구 인성회 정관에 의하면 부주교가 당연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제가 부임 이후부터 인성회 책임을 맡았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3월 28일)은 전국 주교단의 권고하에 대재(단식과 금육)를 지키도록 정하였고, 대재를 지킨 한끼 식사비와 다음주일(30일) 봉헌금을 합하여 인성회에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훔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마태오복음 6장 20~21절) (천주교 전주교구 부주교)

요심이 (347) 김병오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이시계점열)
전화 ②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질,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주 직매점
주오영원(마오로)·김영환(아오스딩)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②2377번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로

문화양행

오중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시계)
주이창수(마오로)
전주 남문옆
전화 ② 8188 (자 ③0369)

전기·산소용접·샷타·샷시·철재
냉난방닥트·합석가공·도장공사
각종간판·현수막·아크릴

전주 광고·공업사

대표 이기배(요비노)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585

※전주역 앞

범모약국

전화 3-5319
김영춘(아오스딩)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사랑으로 가진 바를 나누자
- 1. 3월 28일(금요일)은 회개와 보속의 단식제 권고일입니다.
28일 단식한 분과 30일 주일헌금은 교구 인성회로 보내주세요(고통받는 가정을 위하여)
- 2. 전동성당 9일기도...3월 20일~29일, 치명자 산에서 6시미사
- 3. 전라북도 성모기사회 모임...4월 5일 오후 2시, 파티마 성당에서
※ 오기순 신부님의 특별강론 있습니다

(중앙)

전화 ③3651-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태수원
사도 보좌 사도 최희경

- 1. 아치에스 행사: 23일 오후 2시
 - 2. 성지주일: 30일 공식미사
각자 성지가지 준비하세요
 - 3. 공소판공: 30일-간중리 오후 2시
31일-용흥리 오전 10시
 - 4. 대학생 및 지도위원 신입생 환영회
23일 공식미사 후 교리실
 - 5. J. O. C 훈련회: 22일~23일 가톨릭센터
 - 6. 주일학교 성화상영: 29일<토> 오후 2시30분 강당
 - 7. 3젠대회: 22일-오후 2시~6시,
23일-오전 9시~오후 6시, 회비-1,000원
대상-남·녀 중학생
- 지난주 봉헌금: 337,791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수현

- 1. 판공성사 일정
공소판공-25일(마음리), 26일(관공리)
본당판공-(오후 3시~오후6시까지), 27일(1·2·3반)
28일(4·5·6반), 29일(주일학교·중·고생), 31일(7·8·9반), 4월 1일(10·11·12반), 4월2일(13반·기타반)
 - 2. 어머니회: 공식미사 후(회의실에서)
 - 3.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4. 예수 수난(성지)주일: 다음주 10시
공식미사에 성지가지 행렬 없음
 - 5. 울뜨레아 모임: 25일(화요일) 저녁미사 후
 - 6. 축! 고등학교 성화셀 창설
지도자-송영진, 의장-고준혁, 부의장-김수경
- 지난주 봉헌금: 143,660원 교무금: 49,500원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중근
사도 회장 박낙준

- 1. 본당 판공성사 일정: 24일-우아동, 25~26일-인후동, 27일-중노1가, 28일-중노2가, 29일-남노송동
판공성사는 해당일정에 보시기 바랍니다
 - 2. 성서강의: 4월 7일부터, 매주-월·화요일 밤 8시
베델성서보다 더 깊은 강의를 합니다.
 - 3. 레지오 마리에 피정: 오늘 오후 2시부터
 - 4.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의 신명기 전체
당신은 본당에서 지정한 성경을 읽고 계신지요?
모든게 우리 자신들의 개인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읽어 봅시다
 - 5. 교무금 납부의 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194,885원

(윤정리)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1. 요안히 월례회: 23일 공식미사 후
 - 2. 성지주일: 30일 성지주간이 시작됩니다
 - 3. 봄 판공성사에 임하지 않은 교형자매님들은 4월
2~3일 본당에 와서 판공성사에 임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 4. 신축기금 내주시 분: 정복주·한완남(각 10만원),
최승남·문옥순(각 2만원), 오창석·장미자(각 5천원)
전동 자모회원 일동(128,500원), 덕진본당 신
자 신입생 전종근(1만원), 이종욱(10만원)
 - 5. 복자본당 신일 총액: 95만8천5백원, 파티마 본당 신
일 총액-78만6천원, 노송동 교우 신일증-5만3천원
교형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75,70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오
보좌 신부 조정열
사도 회장 양상열

- 1. 상임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 2. 반석회 임시총회·진복회 월례회: 30일
 - 3. 부활초·제대꽃 기증: 홍정애(초), 방윤애·최덕례(꽃) ※ 각 단체별로 화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유아세례: 4월 3일까지 신청하세요
 - 5. 인성회 특별헌금: 28일(단식) 30일에 봉헌하세요
 - 6. 청년성가대 부활 성가연습: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가
아쉽습니다
 - 7. 공소 및 본당 판공: 25·26일-미산리, 27·28일-내동리,
28일 오전~저녁-동산촌, 4월1일~4일-본당
※ 성사에 빠지지 말고 임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235,935원 기타헌금: 20,00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기홍
보좌 신부 김기홍
사도 회장 유석중

- 1. 9일기도: 24~29일까지 치명자산 6시미사
 - 2. 춘계 판공성사: 27일-전동·중앙동·경원동·다가동
28일-교동, 29일-초·중고생, 30일-공무원
31일-풍남·노송동, 4월1일-완산동
 - 3. 주일학교 도서 기증해 주신분: 이영태(요셉),
유소옥(엘리사벳) 감사합니다
 - 4. 주일학교 사모회 1차회의: 23일 공식미사 후,
장소-사제관
 - 5. 단식 권고의 날: 28일-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 6. 공동 헌금의 날: 30일(일요일)
 - 7. 다음주 복사
새벽미사: 사회자-이선홍, 독서-①이현재 ②박종구
공식미사: 사회자-양현홍, 독서-①장금태 ②김병오
저녁미사: 사회자-김윤주, 독서-①유석중 ②이덕수
- 지난주 봉헌금: 339,690원

(복자)

전화 ⑤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2. 판공성사: 22·23·24일 저녁 7시, 22일-다가동·중앙동·교사동·매평동, 23일-완산동·화산동·진북동·기타, 24일-못보신 분들
 - 3. 다음주일은 성지주일: 인성회 특별헌금 있음,
28일 금욕지킨 것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
십시오
 - 4. 본당신부님 영명축일에 많은 기도와 협조에 감사드
립니다
 - 5. 사순절 본당 피정: 116명 받았음
- 지난주 봉헌금: 276,19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 1. 봄 판공일정: 본당-22~23일, 29~30일
공소-25일(돌꼭지), 26일(두현리), 28일(안실)
 - 2. 사순절 봉헌카드 애공함에 넣어 주세요
 - 3. 성모회 월례회: 오늘
 - 4. 레지오 브레시디움 탄생하였습니다
 - 5. 28일 단식을 권장합니다.
단식한 것은 불우이웃 돕기로 쓰여집니다
- 지난주 봉헌금: 83,140원 교무금: 36,000원
어린이헌금: 2,550원